

세계의 불교사전, 한국의 불교사전

그리고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세계 불교사전의 역사

세계 최초의 불교사전은 1917년(대정 6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오다 도쿠노(織田得能, 1859-1911)의 『불교대사전』(1권, 大倉書店)이다. 이 사전이 세계 최초의 불교사전이다. 편자인 오다 도쿠노는 스님으로서 이 사전의 편찬을 위해 1899년(明治, 메이지 32년)부터 1911년(명치 44년)까지 12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편찬에 열중하다, 중병에 걸려 책을 탈고한 그해(1911년)에 병사, 임종했다. 사후 6년만에 간행되었는데, 세계 최초의 불교사전이라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으나 뜻밖에도 치밀한 불교사전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이 사전을 일명 '오다(織田)불교사전'이라고도 한다.

그 후 일본에서 간행된 불교사전들은 『모범불교사전』, 『불교대사전』(전6권), 모치

즈키 신코(望月信享, 1869-1948)의 『불교대사전』(전10권, 1933년, 大藏 출판), 나가무라 하지메(中村元)의 『불교어대사전』(1981, 동경서적), 『종합(綜合)불교사전』 등이 있다. 중국에서 나온 불교사전으로는 정복보(丁福保) 편 『불학대사전』(1925년)이 있는데, 이 책은 오다의 『불교대사전』을 중문(中文)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23여 년 전 대만 불광사에서 『불광대사전』(8권, 1988년)이 간행됐다. 그중 1933년에 간행된 『망월 불교대사전』(전10권)은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인 불교사전으로서, 불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학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논문은 쓰지않아 없어서는 안 될 사전이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8년 전에 나왔지만, 아직도 이런 사전이 없고, 향후에도 이 사전을 능가할 사전은 드물다. 그래서 이 사전 역시

편자의 이름을 따서 일명 '망월불교대사전'이라고 한다. 영어판 불교사전은 현재 스리랑카에서 간행 중인데, 아직 완간되지 않았다. 고전적인 불교사전이라면 『경율이상(經律異相)』, 『법원주립(法苑珠林)』, 『일체경음』

이다. 이 사전은 앞의 사전을 바탕으로 일본판 『망월불교대사전』 등을 참고해 많은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고, 서술도 잘 된 편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전이 김승동 교수가 편찬한 『인도·불교사상사전』(부산대학교,

초심자 ~ 불교학자까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한 권만 있으면 만사형통!

의(一切經音義), 『번역명의집(譯名義集)』, 『조정사원(祖廷事苑)』 등이 사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역경서들은 불교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동시에 어휘 채목과 그 연구 작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이상과 같은 어휘집이 만들어져서 경전의 이해를 도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엮은 『석원사림(釋苑辭林)』 250권이 있는데, 이런 어휘집이 고전적 의미의 불교사전 성격에 갖춘 책들이다.

우리나라 불교사전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사전은 1961년 5월 22일에 간행된 운허옹하 편, 『불교사전』(법보원, 동국역경원)이다. 그 이전에는 한글로 된 불교사전이 없었다. 이 사전은 주로 일본판 『모범불교사전』과 오다 도쿠노(織田得能)의 『불교대사전』을 참고해 편찬했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 사찰 등을 추가했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사전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사전은 27년 뒤인 1988년 9월 16일에 흥법원에서 간행한 『불교학대사전』

2001.04.30)이다. 이 사전은 새로운 정보와 많은 지식이 추가되었고, 개념도 명확·간결하고 설명이 아주 풍부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상사적인 항목은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에서 기원, 변천까지 자세히 설명해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 네 번째 사전은 『시공 불교사전』(시공사, 2003.07.30)이다. 다음, 다섯 번째 사전은 『가산불교대사전』이다. 이 사전은 모두 13권으로 현재 간행 중인데, 완간된다면 역사적인 사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최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을 출간했다. 이는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불교사전은 약 5, 6종이 있지만 '콘사이스' 사전이라 하면 보통 '휴대용 사전', '소형 사전'으로 통용된다. 민족사는 불교계에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뜻을 품고 『콘사이스판 불

교사전』을 기획했다고 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정했다고 한다. 민족사에서는 제목처럼 휴대가 용이하도록 최대한 사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여러 종이를 시험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질 좋은 종이를 사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1,216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두께는 무려 3.8cm 밖에 안 된다. 책의 두께가 줄어든 만큼 사전을 넣은 가방도 그 만큼 가벼워진 것이다.

초심자 및 불교학자까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한 권만 있으면 만사형통!

책의 두께가 가벼워 휴대가 용이해진 만큼 사전의 내용도 빈약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민족사는 판형은 작은 콘사이스판이지만 그 내용은 백과사전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무작위로 단어를 찾아 타 사전과 비교를 해봤다.



민족사 『콘사이스판 불교사전』(2011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관세음(觀世音)은 Avalokiteśvara의 번역, 보살(菩薩)은 bodhi-sattva의 음사인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준말. 세간의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대비와 지혜로써 자유 자재로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보살.

타사 A 불교사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관세음(觀世音)은 Avalokiteśvara의 번역, 보살(菩薩)은 bodhi-sattva의 음사인 보리살타(菩提薩埵)의 준말. 세간의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대비와 지혜로써 자유 자재로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보살.

타사 B 불교사전

몇몇 불교사전을 비교해봤더니,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설명은 매우 상세하고 명확했다. 따라서 가볍고 얇다고 해서 그 설명까지 알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족사는 부처님 생애와 인도, 중국, 한국, 티베트, 일본 불교의 역사와 초기 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의 교리와 역사, 교리, 사상, 철학, 문화를 모두 망라해 서술했다고 한다. 특히 사상적으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했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식이다. 초심자부터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까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한 권만 있으면 만사형통인 것이다. 사전(辭典, dictionary)은 교리·철학·사상·문화 등 다양한 축적된 지식을 종합하고 압축한 지식종합선물상자와 같다. 사전은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또한 사전은 실용성이 최고여야 한다. 불편하면 안 된다. 바로바로, 즉시,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전의 원칙에 딱 맞는 사전이 바로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이다.

앞으로 국내에 불교사전이 더욱 많이 출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어떤 불교사전을 골라볼까, 라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도록 말이다.



저자 약력 김승동(金勝東) 편자

1940년 밀양(密陽)에서 출생했다. 범명(法名)은 승원(承源), 법호(法號)는 선산(仙山)이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소장·대동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도교사상사전』(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易思想辭典』(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한국철학사』(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佛敎·印度思想辭典』(부산대학교출판부, 2001), 『佛敎·中國思想辭典』(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등이 있다.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사찰의 각종 행사 때, 불교대학 졸업식 때,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1인 1불자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갖기 운동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중국·한국·티베트·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원시·부파·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사상·철학·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